

대출 문턱 낮추니 아파트 구입 나선 2030세대

2월 기준 광주 2030 매입 비율 35.40% 달해... 전국 32% 웃돌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출 확대 영향... 전년 대비 8.14% 급증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증자리론이 신설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조건 완화로 젊은층들이 급매물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이는 전월의 29.85%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면서 2021년 1월(33.0%)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국 평균(31.96%)을 웃도는 35.40%로 나타났다. 2월 광주에서는 1000명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중 354명이 20대 이하와 30대였다.

이는 전월 852명 중 241명으로 28.28%였던 것에 비해 7.12%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2월 27.26%(1405명 중 383명)보다는 8.14%포인트나 늘었다.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2020년 12월 34%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비롯해 지난해 대출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27~28%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증자리론이 신설(1년 한시)되면서 실수요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각각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2억 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집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2030세대의 아파트 구입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북구가 36.30%(281명 중 102명)로 가장 높았다.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연어울림과 중흥동 제일풍경채 등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의 급매 물량의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다음으로 젊은층의 매입 비중이 많았던 곳은 동구로, 동구는 86명 중 31명(36.05%)이 2030세대였다. 이어 광산구 36.03%(297명 중 107명), 서구 35.10%(208 중 73명), 남구 32.03%(128명 중 41명) 순이었다.

올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종전 공시가격)으로 바뀐 이후 연초 크게 감소했던 증여도 이달 들어 다시 늘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과세 기준 변경 전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252건에 달했던 증여가 올해 1월 37건으로 급락한 뒤 2월에는 다시 84건으로 증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나선다

올해 첫 구인난 개선사업 추진 뿌리내림공제 지원 확대 등

광주경총·주조협회(회장 양진석)는 광주지역 주조·금형·용접·소성기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주력산업 구인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산별별 지원범위, 수준, 내용 등을 추가지원(PLUS)하여 주력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광주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광주경총이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뿌리산업 종사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한 '뿌리내림공제', 취업으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뿌리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중년 노동시장 재진입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직종 특화훈련'으로 구성된다.

뿌리내림공제의 경우 정규직 채용 시 공제가입 나이를 55세까지 확대하고, 연 200만원의 기업부담금을 광주시가 대납하는 등 지원조건을 확대해 뿌리기업 고용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뿌리일자리도약장려금도 만 35세부터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시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1인 연 최대 1200만원(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1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내 뿌리산업에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전략직종 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 등을 통해 훈련수당, 구직활동비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뿌리기업과 미취업자는 광주경총 총괄사업본부 전화(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5월부터는 광주경총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의 대치동...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분양

DL건설, 8개동 542가구 규모 조성 편리한교통·생활편의시설 등 장점

DL건설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1143-36번지(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투시도)'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 면적 63~84㎡, 총 5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는 전용면적 기준 63㎡ 112가구, 84㎡ 64가구다.

단지는 '광주 교육 1번지'라 불리는 봉선동에 들어선다. 학원가와 도보권 제석초, 주월중·봉선중·서광중·수피아여중 등 학군이 갖춰져 있다.

이밖에 약 21만㎡(부지 면적), 사업비 879억원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지구 백운광장(2023년 예정)도 가깝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 백운광장역과 봉선역도 들어서면 교통은 더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과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아동

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까운 데다, 푸른길공원·봉선공원·광주사직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 'C2 HOUSE'가 광주에서 처음 적용된다. C2 HOUSE는 최소한의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돼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구당 주차대수 1.3대를 확보했고,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한다. 실내 놀이터·프리미엄독서실·라운지카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분양일정은 오는 10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18일에 발표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682-12번지(공향역 6번 출구 인근)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입주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KJ카드, KIA 우승 기원 '스카이박스 잡아라' 이벤트

12일까지 이벤트 응모 캠핑 입장권 할인 혜택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3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KJ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및 '스카이박스를 잡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을 광주은행 KJ카드로 입장권 매표(인터넷 예매 포함) 시 본인에 한해 25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카이박스를 잡아라' 이벤트는 오는 12일까지 영업점 방문을 포함한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과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벤트에 응모한 후 개인신용카드 30만원 이상(이벤트 기간 중 합산 금액)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일일 이용권을 2매를 제공한다.



추첨은 오는 13일에 진행되며, 23일 KIA-삼성 경기와 25일 KIA-NC 경기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스마트뱅킹(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2023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지역민 및 야구 팬과 함께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고, 즐거운 경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입장권 할인 및 스카이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님의 금융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및 이벤트를 선보이며 금융생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2.34 (-4.52)
↑ 코스닥	854.96 (+7.44)
↑ 금리(국고채 3년)	3.342 (+0.072)
↑ 환율(USD)	1316.50 (+14.6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철탄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